

“불가능이 없는 권능의 역사!”

불임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은 태아가 온전해지는 등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만세 전에 예비하신 인간 구원의 길

첫 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재창조의 역사, 놀랍죠?”

권능의 기도로 태아의 성별이 바뀌고, 대장암 전이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이 건강을 회복하는 등 국내외 성도들의 놀라운 간증.

근본의 빛으로 나타나는 권능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근본의 빛이 드러워져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응답된다.

# 만민뉴스

제735호 2016년 4월 2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재창조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 불임, 유산, 다운증후군 등 치료

오늘날 많은 부부가 불임과 유산으로 고통받고,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가정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가정불화, 우울증, 이혼 등 갖가지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한다.

성경에는 아이가 없던 수넵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해 아들을 낳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왕하 4장).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역사를 오늘날에도 권능의 종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내시며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계신다.

1982년 만민중앙교회 개척 이후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불임과 유산, 다운증후군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건강한 자녀를 얻게 된 사례도 무수히 많다.

특히 1993년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시에는 감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수십 쌍이 한꺼번에 잉태의 축복을 받는가 하면, 이 목사의 기도로 결혼 12년 만에 소중한 딸을 얻은 김수 집사(사진4 두 번째)는 교회 나가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던 아버지까지 전도되어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목사의 기도로 잉태의 축복을 받은 최윤영 권사(사진5 네 번째)를 통해 일본 지교회 중 하나인 아마다타만민교회가 세워졌고, 파키스탄 아시프 나지르 목사는 결혼 10년 만에 아들을(사진1, 6 세 번째), 인도 프로모드 꾸마르 성도는 12년간의 불임을 치료받아 예쁜 딸을(사진4 세 번째), 이관규 전도사는 결혼 13년 만에 아들을(사진4 네 번째), 이미경 집사는 결혼 6년 만에 습관성 유산에서 벗어나 아들을 품에 안았다(4면 참조).

다운증후군은 21년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1개 더 많으므로 정신 지체, 신체 기형, 전신 기능 이상, 성장 장애 등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으로 평생 비정상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임신 중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도 이재록



▲ 이재록 목사의 간절한 기도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진3) 박은진, 임규희, 김미영 집사 가족, (사진4) 이현정, 김수 집사, 인도 프로모드 성도, 이관규 전도사 가족, (사진5) 네팔 사누 라마 성도, 윤성진, 이경미 집사, 최윤영 권사 가족, (사진6) 김영주 집사, 김선호 권사, 파키스탄 아시프 나지르 목사, 김채린 집사 가족.

목사의 기도로 정상아를 출산한 성도들의 간증이 허다하다. 윤성진 집사는 임신 5개월째 기형아 검사(퀴드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으나 이 목사의 기도를 받고 정상아를 출산했다(사진2, 5 두 번째).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자폐증이 기도로 치료되는가 하면(4면 참조), 이현정, 김채린 집사는 조기 양막 파열로 임신 19주째 양수가 쏟아졌으나 건강한 자녀를 낳았으며(사진4 첫 번째, 사진6 네 번째), 이경미 집사는 자궁각임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등(사진5 세 번째) 태어나 자녀에게 다가온 각종 질병들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치료되고 있다.

한편, 태아의 성별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될 때 결정되며 태아의 생식기가 초음파로 감지되는 임신 13주에서 14주경에는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성도의 간절한 소원과 더불어 이재록 목사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 태아의 성별이 바뀌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21년 전, 첫 아들을 낳고 둘째는 딸이기를 바랐던 김선호 권사(사진6 두 번째)는 기대와 달리 또 아들을 잉태했다. 임신 9개월째 검사에서도 아들이었지만 김 권사는 딸 이름을 지어 놓고 예배 때마다 이 목사의 환기기도를 받았다. 그 결과 딸을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여아가 남아로 바뀐 경우도 있으며, 해외 곳곳에서도 응답받고 있다. 이미 창조된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 공의에 합당하게 딸이나 아들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3면 참조).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에게 믿음을 심어주어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사랑 때문이다.

**4 Spring**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6. 4.24~ 4.30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아버지 하나님만
- 우리가 바라볼 것
- 십자가의 도 16-20
- 창세기 강해 16-20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5
- 성령의 9가지 열매 3-9
- 요한계시록 강해 92-97

**GCN TV설교**

- 나의 믿음은 (이수진 목사)
- 막달라 마리아 2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2 (이희선 목사)
- 음기 강해 24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9 (정규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4 (김수정 목사)
-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들 (박은진, 임규희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14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6
- 내 마음의 찬양 29
- 창조와 과학 25
- 모두 드려요 41
- 즐거운 요리 17
- 옛날 옛적에 1
- English 7
- 뷰티풀 라이프 8
- 흥겨운 소리 5
- 플로리스트 12

**해외성회 프로그램**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9
- 회상 스페셜 2

**GCN HD 채널 ktolleh tv 882번**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만세 전에 예비하신 인간 구원의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두 번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남을 때리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이 간교한 뱀의 미혹을 받아 들어 자유의지 가운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리하여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의 주관자(창 1:28)로서 가졌던 모든 권세와 영광까지도 원수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눅 4:6).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물들었고 질병과 가난, 재앙으로 눈물, 슬픔, 고통을 당하며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상대성을 체험하며 경작을 잘 받은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흠으로 지음받은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줄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되 때가 이르기까지 감추어 두셨습니다.

## 2.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인 된 인류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계의 법과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시는 분이므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것도 정확한 공의 가운데 이루십니다.

‘죄의 삯은 사망’ (롬 6:23)이라는 공의의 법칙에 따라 죄인 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누군가 죄를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될 수 없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영계의 법칙 때문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 후 인류가 사망으로 가게 된 것도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이 적용되었고, 범죄함으로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된 것도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영계의 법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죄인 된 인류는 어떤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레위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레 25:23-25) 했지요. 이는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에 관한 토지 무르기 법으로서 흠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만일 가난하여 토지를 팔 때는 그 근족이 대신 값을 지불하면 반드시 그 땅을 돌려주도록 했지요. 이렇게 토지를 무르는 법안에 죄인 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토지를 팔고 사는 법은 근본 흠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직접 관계되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얼굴에 땅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흠으로 돌아가리니 ...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고, 23절에는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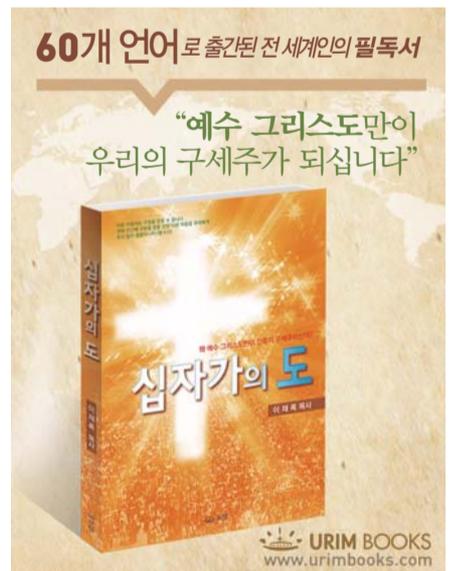
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흠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원수 마귀의 손에 넘어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법칙과 팔았던 토지를 다시 무르는 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첫 사람 아담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영영히 팔 수 없도록 규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원수 마귀에게 넘겨질 때 하나님과 원수 마귀 사이에 계약된 법칙이지요. 따라서 아담이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모든 권세를 넘겨주어도 장차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원수 마귀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라 구세주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때가 이르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만일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해 응답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소개한다.



신현옥 집사 (78세, 3대대 28교구)

## “대장암 전이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은 건강합니다”

2014년 8월, 대장암 4기로  
 간까지 전이되어 절제 수술  
 을 받았는데도 일주일 후 폐,  
 임파선, 유방까지 전이되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  
 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스를 타고 다니엘철야 기도회  
 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설교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를 위한 기도’를 꼬박꼬박 받으  
 니 어느새 통증이 사라졌습니  
 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  
 다고 한 때가 이미 지났지만,  
 몸 상태는 날로 좋아졌지요. 뿐  
 만 아니라 밥맛이 당기고 잠도  
 잘 자니까 교회 오기 전에 46  
 kg이던 체중이 지금은 57 kg이  
 되었습니다.

숨 쉬기가 힘들어서 계단  
 을 오르내릴 수 없었고, 팔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견지 못하고 기어  
 서 다니며 밤낮 없이 소리를  
 질러댔지요.

어느 날, ‘여태까지 무교로  
 살았으니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죽을까?’ 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다음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장민숙 집사님에게 연락해 “교회 좀 데려  
 가 달라.”고 부탁했지요. 2014년 9월, 저는 만민중  
 앙교회 양 떼가 되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  
 험했습니다.

그해 10월 초, 3대대교구장 이미영 목사님이  
 수원지성전에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말씀을 듣던  
 중 배가 화끈하더니 땀이 주르륵 나서 깜짝 놀랐  
 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오  
 래간만에 단잠을 잘 수 있었고, 그 뒤 주일성수는  
 물론 매일 수원 정자동에서 서울 구로동까지 버

더욱이 2015년 8월 3일, ‘만  
 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왼쪽 허리 아래로 빠  
 근하고 잘 안 움직여지던 증상까지 치료받았습  
 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단에서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를 해 주시자 수많은 성도가 단에  
 올라가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순간  
 에 저도 단으로 뛰어 올라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할렐루야!

2016년, 이제는 시커멓던 얼굴이 보얗게 화색  
 이 돌고, 고통 없이 걷고 뛸 수 있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같이 행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요우 게쯔 성도 (30세, 일본 동경타바타만민교회)

## “매일매일 고통스럽던 비염과 화분증을 치료받았습니다”

2년 전부터 저는 비염에  
 화분증 증상까지 겹쳐 매우  
 고통을 받았습니다.



매일 30~40장의 티슈를  
 사용할 정도로 콧물이 많이  
 나왔고, 가려움증이 심해 눈  
 이 충혈 될 정도로 문질러야  
 했지요. 콧물로 인해 바르게  
 누워서 잠잘 수 없으니 제대  
 로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  
 를 사용해야 했기에 숨쉬기도 답답했고, 매일매  
 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정확한 병명을 알고자 병원 CT검사를 했

더니 만성부비강염이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간 약을 복용하고  
 낫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동경타바타만민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아 만민 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  
 사님을 감사로 손수건 집회(행  
 19:11~12)가 있었습니다.

저는 치료받고자 아침 금식과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  
 도받은 손수건으로 이희선 목사님이 기도해 주  
 시자 모든 증세가 깨끗이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유케리아 이준두 성도 (52세, 미국 뉴저지 GCN 시청자)

## “시공을 초월한 재창조의 권능으로 9개월 된 태아의 성별이 바뀌었어요”



애널리 이우 박사와 함께한 유케리아 이준두 성도(오른쪽)

저는 미국에서 GCN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던 중 2014년 5월에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0월, 인터넷을 통  
 해 만민중앙교회의 양 떼가 되었고, 2016년 초에는 재창조의 권능을 체  
 험하는 행복한 일이 있었지요.

지난해 제 남동생 내외(주드, 친예레)가 아이를 가졌는데 첫째, 둘째가  
 딸이었기에 셋째는 아들을 원했는데 또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  
 은 권능의 역사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태중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바뀌는 많은 간증을 듣고 보았지요. 그래서 2015년 8월 31일, 응  
 급치료 전문의 ‘애널리 이우’ 박사님을 통해 이메일로 당회장님께 기도  
 를 요청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새벽, 저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당회장님께서 태중에 있는 아  
 이를 남아로 바꾸시는데, 그 손  
 에 열쇠를 가지고 돌리시는 듯  
 한 장면이었지요.



바로 그날 아주 놀라운 소식  
 을 전해 들었습니다. 임신 9개  
 월이었던 한 달 전만 해도 초  
 음과 검사에서 분명히 딸이었  
 는데, 건강한 아들을 출산한 것  
 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권  
 능을 체험한 남동생 가족은 모  
 두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  
 성도로 등록하였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사랑  
 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케리아 성도의 남동생은 두 딸(아래)이 있었  
 기에 셋째는 아들을 원했다. 놀랍게도 기도받은  
 뒤, 태아의 성별이 바뀌어 아들을 출산했다(위).

# “자폐증을 앓던 아들, 이젠 어떤 아이보다 밝고 똑똑합니다!”

김준옥 집사  
40세, 2대대 12교구

2006년, 저희 부부에게 사랑스런 아들 민성이 태어났습니다.

세 살 되던 해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어느 날 교사로부터 아이 상태가 예상롭지 않으니 소아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아이는 언어지연, 분리불안, 양육자혼동, 애정결핍, 과잉행동이 나타났고,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청전벽력과 같은 현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년 이상 치료 수업 과정을 밟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자폐증으로 정신지체 1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방바닥에 머리를 계속해서 짚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목격하고서야 비로소 내 아이가 자폐아라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신앙은 아내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면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고 한때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사업을 시작한 뒤에는 일을 핑계로 주일 성수조차 하지 않을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폐증은 부모의 죄로부터 오며 부모가 성결 돼야만 치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지요.



아이의 치료를 위해 사업터를 정리하고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각종 예배와 매일 밤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치료와 변화를 믿고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해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곤 했지요.

저희 부부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민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 보기 어려웠던 아이가 선생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뿐 아니라 만민선교원에 즐겁고 행복하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제 신앙과 맞물려 이뤄졌습니다. 신앙에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던 제



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사명을 받아 충성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단을 쌓아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상태도 급속도로 호전되며 이전에 하지 못하던 생각과 행동을 하며 마음과 생각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취학 전 자폐증상 검사에서는 언어 표현 능력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학적 능력과 공간지각능력에서는 오히려 일반 아이들 이상이어서 의사들도 너무 놀라워했지요.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해 이제 4학년이 된 민성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달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아동주일학교 예능부 찬양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습관성 유산, 다운증후군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한결이는 하나님 선물이에요”

이미경 집사  
45세, 1대대 1교구

저는 1998년에 결혼하여 5년 동안 습관성 유산으로 아이가 없었습니다.

2003년 4월,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두 달 후 몸에 이상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으니 임신 8주라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유산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켜 주셨지요. 그런데 임신 13주째 되는 어느 날, 기형아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으로 다운증후군의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라리 다음 아이를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엄마로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했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도 기도받으면 분명히 아이가 정상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꿈을 꾸었는데, 제가 당회장님께 “저 임신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자 당회장님께서 두 손을 제 배 위에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에서 깬 후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서운케 한 일들이 떠올라 통회자복을 했더니 날아갈 듯이 기뻐졌지요. 7월 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는 고개를 가우똥 거리며 “배 속의 태아가 정상이에요!”라고 했습니다.

2004년 1월 20일, 고대하던 3.6 kg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름을 ‘한결’이라고 지었지요.



한결이는 착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올해 열세 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결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교회 큰 행사와 성탄절 때마다 장식과 각종 소품을 제작하는 무대미술팀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남편(김성오 집사)은 기관장으로 충성하면서 직장에서도 우수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한결이를 통해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초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6-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